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3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50점, 700자(±50자))　【문제 2】(50점, 700자(±50자))
3. 【문제 1】은 답안지 1면에, 【문제 2】는 답안지 2면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기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A국에서 기계로 베를 짜는 공장이 늘어나자 손으로 베를 짜던 직공들은 일감을 잃거나 낮은 품삯을 받으며 공장에 들어가야 했다. 품삯이 모자란 노동자들은 가게에 외상을 지고 생필품을 샀는데, 밀가루에 다른 가루를 섞거나 저울을 속여 파는 가게도 적지 않았다. 품삯을 올려 달라는 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한 직물 도시의 직공 B는 동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조합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일하고 혼자 굶었습니다. 공장주에게는 품삯을 올려 달라고 빌었고, 가게 주인에게는 외상을 늘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제 더는 빌지 맙시다. 한 사람의 돈은 보잘것없지만 스물여덟 사람의 돈이면 가게 하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연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밀가루를 바른 저울로 달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와 버터, 설탕 몇 가지밖에 팔지 못하겠지만 그것만은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느냐로 사람을 나누지 말고, 누구나 똑같이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가게를 만듭시다."

〈□□조합 규약〉

- 조합원은 한 사람당 1파운드씩 출자하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인다.
- 조합의 일은 총회에서 정하며, 출자한 금액과 관계없이 조합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한다.
- 물건은 시세대로 현금을 받고만 팔며, 한 해 동안 남은 이익은 조합원이 사 간 물건의 금액에 따라 배당*한다.
- 이익의 일부는 조합원과 그 자녀의 교육에 쓴다.

* 배당: 이익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

②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들어간 지 석 달 동안 나는 아는 사람 없이 인사만 하고 돌아오곤 했다. 달라진 것은 구청이 여는 구 대항 리그에 나갈 대표를 뽑는 날부터였다. 대표는 오래 다닌 순서가 아니라 모임 안 경기 성적으로 정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나는 이기고 싶어 퇴근 뒤에도 남아 서브를 연습했고, 나에게 이긴 회원은 손목 쓰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 주었다. 대표에 뽑히지 못한 회원들도 상대 팀의 경기를 함께 살펴 주었다. 리그 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다. 대회에서는 졌지만 뒤풀이 자리는 길었다.

③ 큰 도가 행해지던 때에는 천하를 모두의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홀아비와 과부, 부모 없는 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 병든 사람이 모두 보살핌을 받았다. 재물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였으나 반드시 자기에게 쌓아 두지는 않았고, 힘은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였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쓰지는 않았다. 이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중략)

이제 큰 도가 숨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고 재물과 힘을 자기를 위해 쓴다. 그리하여 꾀가 생겨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④ **※ 앞부분의 줄거리:** 지주 류보비와 오빠 가예프(레오니드 안드레예비치)가 사는 영지가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이 영지의 농노 집안에서 태어나 상인이 된 로파힌은 벚꽃 동산을 베어 내고 땅을 별장 터로 나누어 빌려주라고 권한다.

로파힌 다만 물론 정리는 하셔야지요. 이를테면 낡은 건물들을 모두 헐어야 합니다.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집도요. 그리고 늙은 벚꽃 동산도 베어 내야 하고요…….

류보비 베어 낸다고요?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이 고장 전체에서 흥미롭고 훌륭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벚꽃 동산이에요.

로파힌 이 동산에서 훌륭한 거라곤 아주 넓다는 것뿐입니다. 열매는 이태에 한 번 열리고, 열려도 처치할 데가 없지요.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요.

(중략)

로파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덤에서 일어나 이 모든 일을 보신다면! 매 맞고 글도 못 배우고 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예르몰라이가, 바로 그 예르몰라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지를 샀다는 것을 보신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노로 있던 영지, 부엌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 영지를 내가 샀습니다.

(중략)

(무대가 비어 있다. 문마다 열쇠를 잠그는 소리, 이어 마차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해진다. 정적 속에서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가 쓸쓸하게 홀로 들린다. 발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문으로 피르스가 들어온다. 늘 입던 대로 짧은 웃옷에 흰 조끼 차림이고 발에는 실내화를 신었다. 그는 병들어 있다.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려 본다.)

피르스　잠겼군. 다들 떠났어. (소파에 앉는다) 나를 잊어버렸어……. 괜찮아, 여기 앉아 있지……. 레오니드 안드레예비치 나리는 털외투를 안 입고 얇은 외투만 걸치고 가셨겠지……. (근심스럽게 한숨을 쉰다) 내가 살펴보질 못했어……. 아이고, 젊은 것들이란!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린다) 삶이 지나가 버렸어, 마치 살지도 않은 것처럼.

⑤　같은 지역에 사는 서로 다른 종의 개체군은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먹이나 서식 공간처럼 한정된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 두 종 사이에서는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두 종의 생태 지위*가 비슷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며, 생태 지위가 거의 겹치는 두 종이 한곳에서 오래 함께 살면 경쟁에서 밀린 종이 그곳에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경쟁 배타라고 한다. 먹이가 같은 짚신벌레 두 종을 따로 기르면 둘 다 잘 자라지만, 한 배양액에서 함께 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종만 남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경쟁이 언제나 한쪽의 소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먹이를 먹는 종들이 먹이를 찾는 장소나 시간을 조금씩 달리하여 경쟁을 줄이기도 하는데, 이를 분서**라고 한다. 한 나무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솔새 여러 종이 나무의 꼭대기, 가운데, 아래쪽처럼 서로 다른 부분에서 먹이를 찾는 것이 그 예이다. 분서가 일어나면 여러 종이 한 서식지에서 함께 살 수 있어 생물 다양성이 유지된다.

한편 서로 다른 두 종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이익을 얻는 상리 공생도 있다. 콩과식물의 뿌리혹에 사는 뿌리혹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고, 식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 생태 지위: 한 종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 먹이, 서식 공간, 활동 시간 등을 포함한다.

** 분서: 생태 지위가 비슷한 종들이 서식 공간이나 먹이, 활동 시간 등을 나누어 이용하는 현상.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그림1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 (연령대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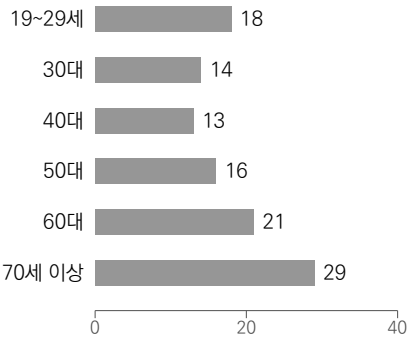


그림2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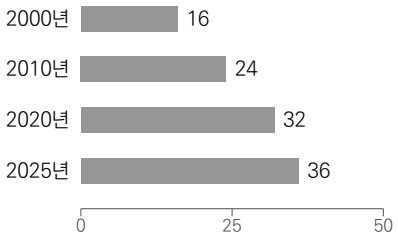


그림3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이유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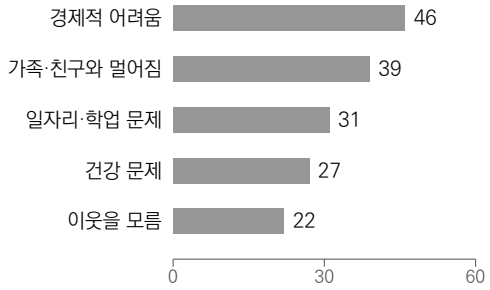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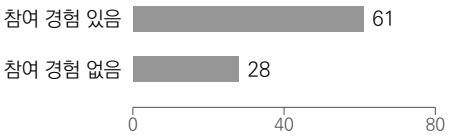


그림4 지역 모임 참여 경험에 따른 「이웃을 믿을 수 있다」 응답 비율 (단위: %)



※ 그림1~4는 문항을 위해 만든 A국의 가상 조사 자료이다.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경쟁은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기술을 익히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게 하며,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풍요가 높아진다. 경쟁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책임을 지며,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경쟁을 억누르고 결과를 똑같이 나누려는 공동체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몫을 주어 성실한 사람의 의욕을 꺾고, 낡은 방식을 지키느라 변화에 뒤처진다. 따라서 사회가 할 일은 경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에 참여하도록 규칙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을 돕는 일도 결국 경쟁이 만들어 낸 풍요가 있어야 가능하다.

〈끝〉